지역 메아리

김제 지평선 쌀밥집 1호점 현판식

김제시보건소는 14일 벽골제 전통가옥 내 단야골(대표 송명용)에서 김제 지평선 쌀밥집 1호점에 대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롯 나병문 시의회의장, 시의원, 자문위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제 지평선 쌀밥집 육성에 관한 경과보고와 인사말씀, 현판(제막)식, 기념촬영, 시식회 순으로 진행하였다.

맛의 고장 김제시는 5천년을 이어 내려온 농경문화의 중심지역으로 품질이 우수한 지평선 쌀과 다양한 농축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장으로 우리지역 고유한 전통과 개성을 살리는 지평선 쌀밥집 육성은 꼭 필요했다.

이에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쌀의 고장 김제에서 꼭 맛좋은 쌀밥정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평선 축제가 열리고, 17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삼한시대 최대 수리시설인 벽골제가 있는 전통가옥 내 단야골에서 김제 지평선 쌀밥집 1호점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번에 개시되는 김제 지평선 쌀밥은 김제의 자부심인 양질의 지평선 쌀을 재료로 즉석 돌솥으로 정성껏 지어 윤기가 흐르고 찰진 맛의 밥과 우리 지역 고유한 맛과 멋을 살리는 차별화된 음식으로 구성된 한상차림으로 단야골쌀밥정식(7천원), 벽골제쌀밥정식(1만원), 지평선쌀밥정식(1만2천원)을 선보인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은 "한번 먹고 간 손님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김제에 가면 꼭 지평선 쌀밥을 먹어 봐야 한다 할 정도로 추억과 정성이 가득한 밥상, 스토리가 있는 밥상으로 미식가들이 즐겨찾는 경쟁력 있는 대표음식으로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원로조합원 한마당 큰잔치 개최

김제시 광활농업협동조합은 '경(敬)의 농업' 실천을 위한 원로조합원 한마당 큰잔치를 14일 개최했다.

70세 이상 원로조합원, 농협임원, 영농회장, 부녀회장, 유관기관 관계자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료조합원들의 화합과 건강한 삶 및 경로효친사상함양과 경(敬)의 농업실천의 장으로 거듭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광식 조합장은 "원로 조합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敬)의 농업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 하며 경(敬)의 농업실천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농가경제, 농업명성, 지역경제를 혁신된 위치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상용차 복합거점 완주에 문열다

현대차 '엑시언트 스페이스',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내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신개념 상용차 복합거점인 '엑시언트 스페이스'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완주에 문을 열었다.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선 엑시언트 스페이스는 복합 전시홍보공간이다.

주요 대형트럭 라인업 및 특장 부품 전시, 하이브리드 구동, 전기버스, 수소연료전지버스 등 현대 신기술 쇼룸, 고객들을 위한 라운지 및 편의 시설운영 등 현대상용차의 고객에 대한 원스톱 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14일 열린 엑시언트 스페이스 개소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지역인사, 현대자동차 임직원, 한국자동차 제작자 협회 회원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공간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과,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본부(유재영 전무)가 완주 지역 협력업체인 ㈜한국토미(대표 이상열)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곳으로 280평 규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해외 수출을 위한 바이어 유치 홍보거점과 접근성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지역 문화 행사와 자동차 동호회,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20년 넘게 소통하며 성장해 온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건승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현대 엑시언트 스페이스 개소를 축하했다.

이어 "더 좋은 일자리와 신산업이 강조되는 격변의 시기에 완주군과 현대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화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추경예산 7350억원 편성

일자리 창출 · 여건 개선에 예산 초점

김제시가 2017년 8월 28일 김제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3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350억원을 초과한 사상 최대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6,334억원 보다 1,016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2017년 5월말 김제시 인구 87,478명임을 감안 1인당 840여만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일자리관련 사업이 다수 반영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추경 예산으로는 국가 일자리추경에 맞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등 일자리 관련 15여개 사업 예산으로 약 16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700여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게는 당초 월 22만원에서 5만원이 인상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근로 사업비도 당초 7억 2,000만원보다 7,000여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으로 확정되어 더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김제시 백년미래를 위한 서울장학숙 설립사업으로 일반예산 20억원과 장학기금 19억원, 총사업비 39억원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맞춤형 장학사업을 완성하여 내고장 학교보내기 목표를 실현하고, 수도권 대학 유학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 구입비 4,000만원과 장애인 콜택시 8대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복지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번 김제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추경 방향인 일자리 창출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들의 일자리 마련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서울장학숙 설립으로 초등에서 대학까지 장학사업을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건식 시장은 금번에 편성된 예산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어울림가족장터 16일 열어

김제시가 행복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요촌근린공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가족장터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을향 가족장터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일본, 태국 등 6개의 다양한 음식과 물품, 지역의 업체들이 후원한 생활용품과 각종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아시아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진행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일본의 다루마오토시 놀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로써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봄, 가을에 진행하는 어울림가족장터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이며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다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가족케이크 만들기 코너에서는 다문화 삼행시 짓기에 참여하면 '함께해요 다문화'라는 케이크 만들기 체험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가족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익주)의 아나바다 에코장터와 김제시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홍보와 모유수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집연합회, 주변 아파트 주민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여하도록 홍보함으로써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가을향 가족장터는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과 다문화가족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행사로써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여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김제시민운동장에서… 17일 5000여명 참가

제16회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가 17일 김제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Half(21.0975km), 10km, 10km단체전(4인 1조), 5km, Half/10km 마니아 종목으로 구성되어 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지평선 축제를 알리는 이번 마라톤대회는 명실상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달림이들의 축제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지평선 햅쌀(10kg), 티셔츠, 완주메달, 기록칩 및 기록증(5km 제외)이 기념품으로 제공되며, 올해는 국민마라토너 봉달이 이봉주 선수와 함께 10km를 달릴 수 있고, 펜사인회도 있을 예정이다.

시내일원의 차량통제는 대회가 열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시민운동장↔김제온천사거리↔ 서암사거리↔후석삼거리↔ 서김제IC↔만경삼거리(삼복주유소) 구간이 통제되며, 행사당일 교통경찰 100여명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40여명이 교차로와 도로변에 배치되어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무인헬기 활용한 시범방제 시행

완주군이 방제차량 접근이 어려워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무인헬기를 활용한 시범방제를 시행했다.

14일 완주군은 소양면 신교리 매골외 3개 읍면 50ha 지역에 무인헬기를 활용한 돌발해충시범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13일 이틀에 걸쳐 산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공동으로 농림지역 긴급방제를 실시했으며, 친환경농작물 재배 및 양봉채취지역은 제외했다. 특히 무인헬기와 차량광역살포기 등 방제장비를 동시에 투입하고, 돌발해충 산란 전에 실시해 방제효과를 높였다.

시범방제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군의회 의장, 군의원들이 참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무인헬기 항공방제 효과를 분석해 내년도 국비를 신청, 방제지역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래프팅 / 카약
스 키 / 보 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알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다수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삿뽀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격 취득
응급처치 요원 지격증 취득
래프팅 가이드 지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격증 취득
현)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대표